

# 롯데-부산시, 12시간만에 극적 협상... 광복점 운영 재개

롯데타워 건립 추진 업무협약  
송용덕 롯데지주 대표 등 참석  
“임시사용 연장승인 보답할 것”

하루 사이 부산롯데백화점 광복점의 운명이 바뀌고 또 바뀌었다. 타워 건립에 관한 문제로 빚어진 갈등에 하루 사이 문을 닫을 뻔 한 광복점이 부산시와 약 12시간 만에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2일 롯데그룹과 부산시는 부산시청에서 롯데타워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과 송용덕 롯데지주 대표(부회장), 정중호 롯데백화점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 직전 부산시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아쿠아몰, 엔터테인먼트동에 대해 임시 사용을 재승인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31일까지였던 임시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했으나 부산시가 당일 자정까지 승인을 보류하면서 폐점 위기에 처하자 1일을 임시 휴무일로 지정하고 맞섰다. 임시사용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800여 개 브랜드, 3000여 명의 직원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처지였다.

광복점 폐점 소동은 초고층 빌딩 부산 롯데타워 건립과 관계 있다. 롯데 측이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고 금싸라기 땅을 매입하고 공공재인 바다까지 매립



2일 롯데와 부산시는 롯데백화점 광복점 초고층 롯데타워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96년 부지를 매입한 후 2022년 현재까지 롯데가 타워 건립에는 미온적이면서 임시사용 허가만 받은 채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부산시는 임시사용 허가를 보류하면서 초강수를 놓았다. 사진은 1일 부산시 측의 재승인 보류에 임시 휴점에 들어간 롯데백화점 광복점 모습. /뉴시스

하고서 백화점과 마트만 완성한 채 수년간 미룬 탓이다.

롯데 측은 27년 전인 1995년 부산시와 옛 부산시청사 부지 매각을 의논하고 다음해인 1996년 107층 높이의 초고층 빌딩 건설 'P프로젝트'를 목표로 매입했다. 롯데 측은 2000년 지하 2층 지상 107층에 높이 464.5m로 건축허가를 받고 2001년 1월 첫삽을 떴다. 당시 주변 상인들이 상권 파괴 등을 우려했으나 랜드마크로서의 관광자원 가능성을 보고 부산시는 사업을 승인했다.

문제는 2022년이 되도록 롯데 측이 타워를 단 1개 층도 짓지 않은 데 있다.

초고층 빌딩 건설은 기업에는 사실상 수익성이 없다.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를 견디고 높이를 떠날 최첨단 시공과 특수 건축자재를 써야 해 단위 면적당 일반 건물 대비 3배 이상 비용이 든다. 반면 '초고층 프리미엄'을 이유로 임대료 등을 높이 받을 수도 없고 호텔 또한 전층을 스위트룸으로 만드는 식으로 고액 숙박료를 책정할 수 없다. 이러한 수익성 문제는 첫 건립 계획 당시부터 불거졌다.

그럼에도 P프로젝트가 강행된 데에는 부산이 고향인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의지가 컸다. 행정구역상 중앙동임에도 점포명이 광복점이 된 것

역시 신 창업주가 젊은 시절 광복동으로 불린 데 있다. 그러나 2010년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우선 완공된 후 급격히 신 창업주의 건강이 나빠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2020년 세상을 떠나면서 P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됐다.

건립이 늦어진 것과 관련한 롯데백화점 측은 심의 기간을 문제 삼는다. 롯데백화점 측은 지체된 건립에 대해 <메트로경제>에 “부산을 대표하는 초고층 건물을 짓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이다 보니 설계 과정에서부터 최근 규격 심의를 통과하기까지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며 “건립이 다소 지연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익성 문제와 별개로 부산시가 롯데타워 건립을 밀어붙이는데에는 초고층 빌딩이 주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역사회의 크기 때문이다. 오랜 건설 기간 중 도시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도 있지만 랜드마크로서 도시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고 막대한 관광수입을 올리는 재원이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랍에미리트의 버즈 칼리파와 중국 상해의 동방명주를 둘러싼 상하이센터, 월드파이낸스센터, 진마오 타워 등이다.

국내에도 있다.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롯데가 2016년 완공한 잠실 제2롯데타워가 만들어낸 경제가치는 10조원 이상에 달한다. 인근 부동산 시세 또한 3년간 50% 이상 오르는 등 즉각적인 시장

반응을 끌어냈다.

롯데 측은 지난 10여 년간 수익성 확보를 위해 여러차례 오피스텔, 레지던스 등 주거시설 추가를 요구하는 등 계속해서 계획을 바꿨다. 107층 마천루형 타워동은 2019년 56층(300m) 규모로 대폭 작아졌다. 그러나 관광시설 용도의 랜드마크 건물로 계획하면서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고 2008년 바다를 매립하면서 주거용으로 변경하는 데에 반발과 비난이 쏟아졌다. 부산시와 지역 시민단체의 롯데타워에 관한 요구와 분노는 굉장히 크다.

부산시 김필한 건축주택국장은 지난 1일 기자 간담회에서 “롯데 측이 21년 전 착공 후 지금까지 타워동 건립을 마무리 하지 않고 있고, 2019년 공공수목원 건립 계획 발표 이후에도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에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NGO시민연합 또한 지난달 13일 롯데타워를 107층 규모의 원안 건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롯데는 협약을 마무리 한 후 낸 간단한 입장문을 통해 2025년까지 건립을 약속했다. 롯데백화점은 이날 “부산시의 임시사용승인 연장 승인에 보답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롯데케미칼-SK가스-에어리퀴드코리아 합작법인 설립

# 연 50만MWh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추진

롯데케미칼·SK가스 공동 경영  
전국 주요 거점에 수소충전소 구축

롯데케미칼과 SK가스, 에어리퀴드코리아가 부생수소 기반 발전사업과 수소 송용 사업 등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이번 합작법인은 작년 5월 롯데케미칼이 SK가스, 에어리퀴드코리아와 수소사업을 위한 각각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수소 사업과 관련한 각 사의 역량을 결집해 사업을 조기 안착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합작법인은 롯데케미칼과 SK가스,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각각 45%, 45%, 10%의 지분을 출자해 설립할 예정이며 롯데케미칼과 SK가스가 공동 경영에



수소 합작사업 계약서 체결 (왼쪽부터) 황진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 윤병석 SK가스 대표, 니콜라 푸아리앙 에어리퀴드코리아 대표 /롯데케미칼

나선다.

합작사는 롯데케미칼과 SK가스가 부생 수소를 확보할 수 있고, 수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울산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을 첫 사업으로 시작한다. 이 발전소는 연 50만MWh의 전

력 생산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이는 12만가구(4인가구 기준)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사용량이다.

이들은 이후 전국 주요 거점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블루·그린수소에서의 협력도 검토할 계획이다.

각 사는 보유 역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황진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는 “수소산업 초기 생태계 형성을 위해 각 사의 핵심역량을 집중해 친환경 수소 시장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고, 윤병석 SK가스 대표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이 대한민국 수소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마중물이 되어 향후 국내 수소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중소 대상 ESG 경영 요구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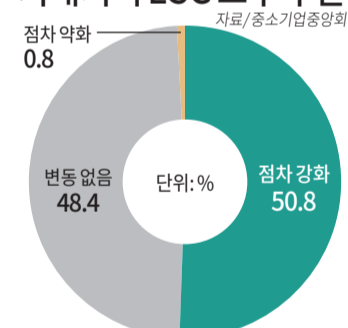
중기중앙회 ESG 대응현황 조사  
응답기업 20% “평가요구 경험 있어”

ESG 경영이 중소기업들에게도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거래대기업이 ESG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중소기업 현장에서 많은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ESG 경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대기업 협력사 및 수출 중소기업 등 공급망 내 중소기업 621개를 대상으로 ‘ESG 대응현황 조사’를 실시해 2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거래처의 ESG 경영 요구기준에 대해서 ‘대략적인 가이드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에

거래처의 ESG 요구 수준



66.1%에 달했다.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경우는 26.6%에 그쳤다.

응답기업의 50.8%는 요구받는 ESG 정보량 및 평가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20%는 ‘ESG 평가요구 경험이 있다’고 응답(복수)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CJ대한통운, ‘큐브릿지 2.0’ 본격 운영

포워딩 시스템 고도화로 글로벌 공략

CJ대한통운이 최첨단 디지털 포워딩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국가별 특성을 반영해 사용자 편의성을 증가시킨 글로벌 통합 포워딩 시스템 ‘큐브릿지(Q-Bridge) 2.0’를 본격 운영하면서다.

2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큐브릿지는 수출입 물류 전반에 걸친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포워딩 시스

템이다. 지난해부터 현장도입을 시작했으며 처음으로 전세계에 있는 해외법인과 계열사의 개별 포워딩 시스템들을 하나로 단일화했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CJ대한통운은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포워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9개국에 큐브릿지를 확대 적용했다. 국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했으며 글로벌 표준 프로세스 확립을 통해 운영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 중기부 등 8개 부처, 모태펀드 2차 출자

47개 벤처펀드 선정... 1조 규모

‘모태펀드 2022년 2차 정시 출자 선정’ 결과 47개 벤처펀드, 약 1조원 규모가 최종 뽑혔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 8개 부처가 5000억원 이상을 출자

해 벤처펀드 선정을 끝냈다.

1차 정시 선정에 이어 이번 2차 정시 선정 결과까지 합하면 총 2조50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모태펀드가 1조508억원을 출자했고 이를 통해 이괄 민간 출자금 규모는 1조4843억원이다.

중기부가 출자를 통해 초기 창업기업

의 성장 발판이 돼줄 ‘창업초기펀드’ 총 3347억원을 선정했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버팀목펀드’는 1118억2000만원이 선정됐다. 또 결성 이후 일정 기한이 지난 기존 벤처펀드의 출자자(LP) 지분을 인수하는 ‘LP지분유동화펀드’와 기존 벤처펀드가 보유한 지분 중 회수가 어려운 비유량 지분을 인수하는 ‘벤처제도약세 컨더리펀드’는 각각 1300억원, 434억 5000만원을 선정되었다. /김승호 기자